

“교수와 학생은 주체로, 총장은 책무를 다하는 대학 만들 것”

오환섭 예비 후보자

정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대학에서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면 결정권자는 주인이 되고 구성원은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 전락한다. 이런 구조는 종이 주인의 눈치만 보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행정력은 힘 있는 결정권자를 향하게 되고 결정권자가 행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모습이다. 교수와 학생이 주체가 되고 행정은 주체의 눈치를 보는 머슴, 그리고 총장은 머슴의 상머슴의 자세가 자연스러운 대학, 교수와 학생의 기가 살아있는 대학, 자긍심 있는 대학으로 우리학교를 바꾸고자 예비 후보자로 나오게 됐다. 지난 40년 간 연구산학협력처장, 교수의회 의장, 고등 교육인정심의위원 및 공학분야 위원장, 지식재산교육 연구학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직무를 수행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평가와 교육 인증 등 누구보다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험의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

Q2. 최우선 정책은.

권력 중심을 향해 있는 행정을 교수와 학생을 위한 교육과 연구, 대학의 품격을 향하도록 돌려놓는 일이다. 학생 눈치 보느라 등록금 동결, 노조 눈치 보느라 개선되지 못한 직원 인사제도, 교수 눈치 보느라 미흡해진 승진 재임용제도 개선, 교내외 동창 눈치 보느라 평가 대응 중심의 대학 운영 등 이러한 일들이 거듭되는 재정 적자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결국 교육 환경 개선은 불가능해졌고 직원은 업무에 무기력해졌다. 대학원 교육 역량은 상실했고 과제 수행 능력은 저하됐으며 입시경쟁력도 낮아졌다. 교수의 연구 의욕과 역량도 저하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하겠だ. 그동안 눈치 보며 하지 못한 중요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교육 공간과 시설 확보에 재투자 할 것이다. 교육의 질 인증제를 학습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미래융합인재대학(가칭)’을 설립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해 성숙한 대학 문화를 창출하겠다. 대학 교육에 경쟁력이 있을 때 우수한 입학생이 학교를 찾게 된다. 향후 대학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해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첫째, 교육을 위한 기본적 재정으로 등록금과 정부 지원 및 정책 과제를 재

**학력**

경희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공학사), 경희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주요경력

경희대 교수의회 초대 의장, 경희대 연구처장,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 정부 정책과제·지식 활용한 기술 및 창업 통한 재정확충
- 전통적 학문과 신지식의 융합 체계로 변화해야
- 연구 교류 가능한 환경 조성, 석좌 교수 제도 확대에 힘쓸 것
- 거버넌스의 슬림화와 회의체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

전 입학 제도를 실시하겠다. 학, 석사 연계과정도 활성화시키겠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거버넌스의 슬림화, 회의체 개선으로 의사 결정구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또한 업무지원팀을 신설해 단위 부서별 어려운 일이나 기회에 필요한 일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으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 및 문화 행사도 기획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다양한 권력형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 영입 및 전문 조직 구성을 시행하겠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정부정책사업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교육을 교육과정에 착근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LINC+ 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 현재 진행되는 정부 정책 사업은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행정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LINC+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첫째로 학생 창업과 교수 창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이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인프라, 창업 지원제도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을 정비하겠다. 창업 교육은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겪을 수 있는 수차례의 직업적 위기, 노년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 역량과 아울러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내재화 해 삶을 지탱하는 베풀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 및 융합 교육 확대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Q12. 연구처장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평가에서의 교수 연구 부문 점수의 상승과 교내 연구 지원 및 제도 개발을 위한 방침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구에 있어서는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 연구의 양과 질을 이분법으로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질이란 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창출하면서 질이 강화될 연구에 대폭 투자하겠다. 또한 고등 교육기관으로 인류에 기여할 의미 있는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노벨상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겠다. 대외 평가 지표는 아직 양적인 점검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이를 뛰어 넘어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양과 질을 동시에 점검하고 학문 분야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와 성과를 창출할 때이다.

“

학문 분야별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양과 질을 동시에 점검하고 학문 분야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와 성과를 창출할 때이다.

”

원으로 해 기본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향후 대학 보유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기술 이전, 창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정 확충을 도모하겠다. 셋째, 기타 발전기금으로 재정 자원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장이 직접 선두에 설 것이고 앞으로 될 것이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보다는 무슨 일을 어떤 자세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비록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지식과 역량에 따라 직장은 변할 수 있지만 직업을 100세 시대의 직장으로 선택하는 시

대다. 종신할 수 있는 직장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대학은 사회로 진출하는 초년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전통적 학문 기반의 학과 교육과정에서 신지식과 융합하는 전공으로 변화해야 한다. 신지식과의 융합은 복수 전공 혹은 신지식이 압축된 소수 과목의 트랙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교육과정을 점차 신지식과 전통학문의 융합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공 분야별로 사회 진출이 가능한 목표와 학습 성과를 측정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먼저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2018년 대학알리미 기준으로 총 4,626 명의 외국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유학생은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학습 관리와 학습의 질을 지원할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입시전형 원칙을 재정립하고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에 주력하겠다. 물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 교육 여건 개선도 고민할 것이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연구 역량 강화란 양적인 연구 실적